

자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하고 싶었던 말이였다. 끝으로 聖德王의 薨年은 기왕에 논의된 바 있고 마침 銘文에 보이며 年表를 살펴 보았다. 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註

- ① 葛城末治：『朝鮮金石攷』(國書刊行會，一九七四)
- 關野 貞：『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一九四一)
- 今西 龍：『新羅史研究』(國書刊行會，一九七〇)
- 洪思俊：『然齋考古論集』(考古美術資料一二輯，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七)
- 黃壽永：『續金遺文』(考古美術資料一五輯，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七)
- 李錫浩 譯：『東京雜記』(大洋書籍，一九七三)
- 『新增東國輿地勝覽Ⅲ』(民族文化促進會 譯，一九七一)
- 坪井良平：『朝鮮鐘』(一九七四)
- ② 註①의 諸書，同一한 字를 常用字로 한 것은 表에 넣지 않았다. 行數는 鍾 銘拓本에 따랐고，주종관의 인물은 上·下에 썼으므로，그것은 따로 行數 를 따져 一連키 했다.
- ③ 坪井良平：『朝鮮鐘』p. 49
- ④ 『二國史記』卷第三十五 雜志第四 地理 長堤郡條
- ⑤ 李箕永：『元曉思想』(弘法院，一九七一年再版) p. 81에서 原文과 解釋 을 붙여 인용해 놓았으므로 以下에 引用하였다.
- ⑥ 洪思俊：『然齋考古論集』
- ⑦ 全相運：『韓國의 古代科學』(探求堂，一九七二) p. 102
- ⑧ 洪思俊：『然齋考古論集』p. 62
- ⑨ 全相運：『韓國古代의 科學』p. 103
- ⑩ 本基白교수：『景德王과 斷俗寺·怨歌』에서 信忠이 上大等에서 물러나는 것을 『景德王』로부터 背信당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보고 있다. 『新羅政治 社會史研究』p. 225) 그가 王黨派였다는 때는 같은 견해이나，背信 당했다기 보다는 金宮의 進出에 따른 失脚의 아닐까 생각한다.
- ⑪ 『二國史記』卷第七 新羅本紀 第七 文武王 十二年條
- ⑫ 全相運：『韓國의 古代科學』p. 150
- ⑬ 朝鮮學報 第四十五輯(朝鮮學會 一九六七) p. 39 『古代의 朝鮮』(學生社，一九七四) p. 190
- ⑭ 令西 龍：『新羅史研究』p. 533
- ⑮ 李基白：『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一九七四) p. 114
- ⑯ 李基白：『前揭書』p. 157 『新羅 中代 中侍(侍中) 一覽表』
- ⑰ 李基白：『前揭書』pp. 231—232
- ⑱ 末松保和：『新羅史의 諸問題』p. 419
- ⑲ 末松保和：『前揭書』p. 421 末松은 中國記錄을 過信하는 나머지 『三國史記』를 너무 輕視한 듯하다.

獐項里 廢寺出土의

石造如來像의 復原과 造成年代

大西 修 也

- 一、獐項里廢寺址의 現狀과 遺物
- 二、如來像의 八角石造臺座
- 三、如來像의 現狀復原
- 四、如來像의 制作年代
- 五、如來像의 推定復原
- 六、如來像의 尊名에 關하여

獐項里 廢寺址(史蹟四十五號) 出土의 石造如來像은，現在는 國立慶州 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다. 그러나 이 像은 完品은 아니고，頭部 胸部，左腕，光背等 十餘個의 斷片으로 된 佛像이다.

이들의 佛像斷片이 慶州分館에 搬入된 것은 一九三二年이었는데，當時 慶州古蹟保存會에 의하여 月城郡 陽北面 獐項里 塔亭의 五層石塔이 修理復原 ① 되었을 때，寺址의 一角에 散在하였던 斷片을 彫刻이 優秀한 것이라고 하여 分館으로 運搬했던 것이 最初이다.

그 後에도 金堂址의 前面附近에서 斷片이 出土되었고，最近에도 佛像의 右胸部 斷片이 發見되어 關係者의 努力으로 다시 分館에 搬入安置되었고，지금에는 斷片의 數도 大·小 十三個에 이르게 되었다.

一九七三年 五月，慶州博物館에서 처음으로 獐項里 廢寺址出土의 石造 佛斷片을 보았던 筆者는 그 彫刻의 힘찬에 感動하였고 또 佛像 頭部의 크기로 보아도 決코 石窟庵의 本尊에 못하지 않는 것임에 우선 놀랐다. 그 後，日本政府의 援助로 韓國에 의 留學이 實現된 것을 機會로 慶州로 갈

때마다 斷片의 出土地인 獐項里의 現場과 慶州博物館을 訪問하여 이 佛像에 關한 調査를 계속해 왔는데, 겨우 可能한 範圍에서 同 佛像의 復原을 하였으므로 여기에 紹介하고자 한다.

바라건대 이 獐項里의 石造佛像은 慶州를 中心으로 하는 石造佛의 研究에 不可缺의 貴重한 價値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므로, 拙稿의 復原과 거기에 派生된 諸問題에 關하여 先學諸兄의 批判, 指導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一、獐項里 廢寺址의 現狀과 遺物

廢寺址는 新羅의 五岳의 하나인 吐含山의 東南에 있다. 지금은 石窟庵으로 通하는 하이웨이가 分水嶺에 이르는 地點에서 오른쪽으로 溪谷을 내려가고, 다시 東쪽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丘陵을 산능성을 따라가면 約 五十分쯤하여 直接 寺址의 뒷산으로 나간다. 이 丘陵의 突端에 前方과 左右에 大鐘川 上流의 溪流가 있고, 조금 떨어진 臺地가 있는데, 그곳에 木표로 하는 伽藍址가 있다.

伽藍址는 좁은 臺地를 利用하여 만들어진 탓인지, 金堂址를 中心으로 하여 그 左右에 兩塔만을 配置한 簡單한 規模인 듯하며 講堂址 등은 確認되어 있지 않다.

金堂址는 簡單한 發掘調査가 이루어져 前面幅 約 一五·八m, 앞쪽에 서안까지의 거리(奥行) 一·七m의 基壇과 基壇石이, 또 基壇上에는 三間三面の 金堂址와 礎石 十二個가 露出되어 있다. ②

金堂基壇을 向하여 左側 約 十五m의 位置에는 一九三二年 가을에 再建된 ③ 西五層石塔이 있고, 그 中間의 空地에는 그때까지 金堂의 右側에 있는 溪谷에 崩落되어 있던 東五層石塔의 屋蓋石 五個와 第一層塔身 및 基壇石이 쌓아 올려져 있다.

그리고 現地 古老의 이야기에 따르면, 獐項里 石造如來像의 斷片의 많은 것은 金堂址의 前方 約 八m餘의 벼랑의 바로 옆 소나무 附近에서 出土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金堂址의 中央에는 佛像의 八角石造臺座가 있는 것으로 보아 獐項里 廢寺址出土의 石造如來像은 이 절의 本尊이었었다고 생각하여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二、如來像의 八角石造臺座

臺座는 上·下에 二個의 加工한 돌을 쌓아올린 形式이고 높이는 一m餘 幅 二m餘에 이르는 큰 것으로서 金堂址의 實測에서도 대강 原位置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圖1)

臺座의 上石은 이른바 蓮華座에 해당하는 것으로 高 五三cm, 最大幅 一八四cm의 圓形盤石이며 위로부터 仰花, 反花, 圓形가장자리를 刻出하고 이어서 圓形에서 八角形으로 意匠轉換하여 二段의 받침을 造出하지만, 이것은 아래의 八角基壇과 意匠을 一致시키고 함께 覆石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臺座上石의 表面에는 橫 五三·縱 六七·深 二四cm의 長方形孔이 파여져 있지만 現在는 금이 가서 터져 三個로 分離되어 있다. (圖2)

臺座의 下石은 高 六〇cm, 最大幅 二〇四cm의 이른바 八角形基壇인데, 아래로부터 地臺石, 二段造出, 中台石으로 나누어져 있다. 地臺石의 위의 造出은 조금 둥글어 보이며, 西塔下層基壇覆石의 造出과 같다. 中臺石은 高 三七cm, 一邊 七一cm의 八面體로, 各面에는 眼象이 새겨지고 다시 神將像과 獸神像이 交互로 配列되어 있다.

臺座의 造形面에서는 仰花(幅 二五·八cm)가 蓮瓣의 가운데에, 忍冬文을 中心으로 하는 華麗한 花文을 만드는 것이 特徵이고 反花의 復蓮瓣의 雄頸함과 對稱의 이지만 蓮座全體로서는 그러한 裝飾性이 현저한 反面, 纖細로 호르기에 앞선 痕跡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忍冬文樣이 臺座뿐만 아니고 佛像의 光背 中에도 半팔뿔形이 使用되어 있는 것과 함께 年代推定에 실마리를 주고 있다.

그리고 仰花와 反花는 原來 十六瓣이었다고 推定되지만 現在는 仰花 五, 反花 六을 臺座의 正面 가까이 남기고 있을 뿐이다.

眼象紋은 特히 統一新羅時代가 되면 佛像臺座가 浮屠의 基壇을 비롯하여 모든 石造物의 造形意匠으로서 登場하지만 獐項里 것은 脚部가 보여 주는 曲線에 痕跡이 있고, 다시 脚部가 아래로 내려옴에 따라 中臺石의 表面보다 안으로 깊이 먹어 들어가는 느낌으로서 새겨져 있는 것이 特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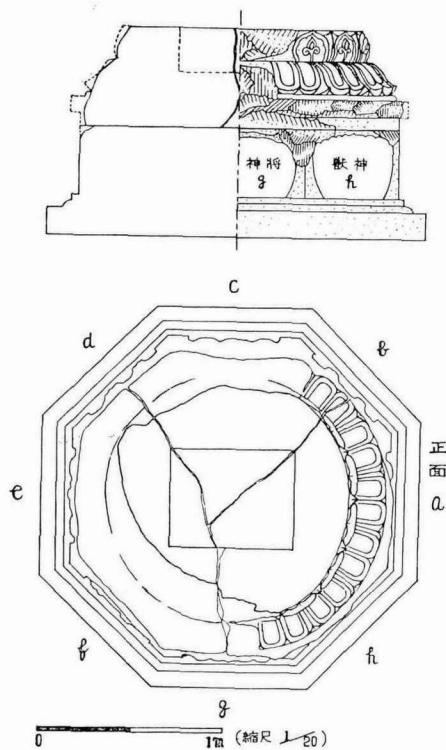


圖 2. 八角石造臺座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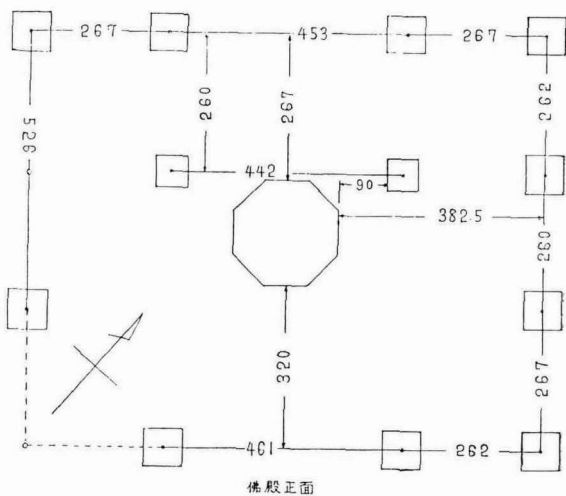


圖 1. 獐項里廢寺 金堂址 礎石配置圖
(單位 cm) 實測・大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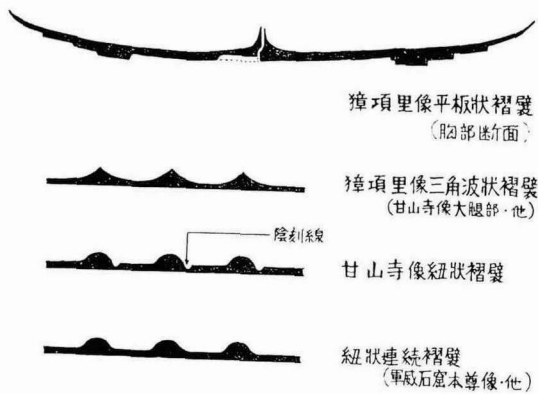


圖 4. 各尊像の褶襞比較



圖 3. 國立慶州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頭像

臺座의 正面은 佛殿의 正面과 一致하기 때문에 眼象紋의 가운데에 配하여져 있는 神像의 造形에도 그러한 正面性이 考慮되어 있다. 卽臺座의 中央에는 正面向의 神像坐像(圖2-1-a) 그 兩側에는 中央을 向하여 對峙하는 獸神像(圖2-1-b·c)이 造形되어 있다.

四體의 神將坐像은 四方에 位置하고 兩腕을 들어서 眼象의 上邊을 떠 받치고 있는 이른바 아르타스의 役割을 가지고 舞上하는 天衣의 先端은 上院寺鐘의 飛天의 天衣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二枝로 나누어져 있고 甲冑에는 花文이나 忍冬文의 裝飾을 붙인다. 神將像에서는 臺座背面的 것이 거의 完全하게 남아 있다.

獸神像에서는 臺座正面 왼쪽의 像이 完全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西塔塔身의 仁王像과 함께 獐項里廢寺址의 代表的 浮彫像으로 되어 있다.

이 像은 오른쪽의 獸神像과 함께 中央을 向하여 對峙하고 兩前肢를 비스듬히 上方으로 突出하고 한쪽발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려 毛髮을 곤두세우며 꼬리를 잡아올리는 威壓의 形相을 하고 있다.

臺座背面的의 二體는 어느 것이나 脚部를 除하고는 剝落하고 있으므로 不明이지만, 前面의 二體와는 달리 前肢를 땅에 붙이고 앉는 形式이었었다고 생각된다.

三、如來像의 現狀復原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如來像의 臺座의 上面에는 長方形孔이 뚫려져 있는데, 이것은 臺座上에 如來像을 安置하기 爲한 加工이며, 勿論 寶物이나 舍利 등을 藏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最初로 獐項里 如來像의 斷片을 보았을 때, 如來의 下半身部에 該當하는 斷片이 거의 없는 것에서 筆者도 이 像을 坐像이었지나 않았을가고 생각해본 일도 있었으나 慶州 甘山寺址 傳來의 彌勒菩薩立像과 그 臺座를 보고 獐項里如來像도 立像이라는 것을 確信한 것이다.

즉, 甘山寺 彌勒菩薩像에서는 臺座의 中央에 方形孔을 파고 그 곳에 菩薩立像의 足下에 造出된 方形의 자루를 끼어 넣으므로서 位置를 決定하고 다시 光背의 脚部가 臺座上에 있어서 立像의 安定을 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佛像과 臺座의 接合方法은 獐項里如來像과 臺座에도 適應될 수 있는 것으로 獐項里如來像은 立像으로 보고 金堂 中央의 臺座上에 復原을 試圖해봄으로써 如來像의 復原作業은 急速한 進展을 보게 되었다.

卽, 如來像의 兩足은 長方形孔에 끼여지는 자루의 上面에 만들어진 關係上 立像의 兩足은 대강 平行으로 연이어 놓아서 새겨져 있었다고 推定이 되며, 如來立像의 身光은 臺座上面에 接하고, 脚部의 幅도 臺座 上面의 幅보다 좁아짐으로 光背外形의 復原도 可能하게 되었다.

(1) 光背의 復原(復原圖)

光背에 該當하는 斷片은 頭光과 身光을 合하여 十一個가 確認되었는데 그中 三個는 復原不可能 ④하여 다음의 斷片을 가지고 光背復原에 힘썼다. (斷片石의 頭記號(a)-(h)는 復原圖 中の 記號와 一致한다)

(a) 頭光斷片으로 表面에 火焰과 化佛을 陽刻하고 있다. (높이 五二cm, 넓이 三六cm, 길이 二六·五cm)

(b) 頭光과 身光의 斷片으로, 二軀의 化佛과 火焰、斷片(a)에 있는 化佛의 雲文들을 陽刻하고 있는 光背의 最大斷片石. (높이 一四八cm, 넓이 六四cm, 光背部分 길이 一八cm)

(c) 頭光斷片으로 火焰과 圓光만을 陽刻하였던 것. (높이 三一cm, 넓이 三三·五cm, 길이 一八cm)

(d) 如來頭部와 同刻된 頭光斷片으로 化佛 一軀와 上部에 위치하는 化佛의 雲文들을 陽刻하고 있다. (頭部部分 길이 一五·五cm)

(e) 頭光과 身光의 斷片으로, 化佛 一軀와 二種類의 火焰들을 陽刻하였던 것. (높이 一·五cm, 넓이 六〇cm, 身光外緣端의 길이 六cm)

(f), (g) 如來의 腕과 同刻된 身光斷片으로 身光部分은 지금 二個로 分離되었으나, 化佛 一軀와 身光의 火焰들을 陽刻하고 있다. (높이 六二cm, 넓이 六〇cm, 身光外緣端 길이 九cm)

(h) 如來裙衣와 同刻된 斷片으로 身光部分으로서 넓이 四·五cm의 造出이 남아 있다. (높이 四六cm, 넓이 四二cm, 身光部分의 길이 一三cm)

上記(a)-(h)의 斷片石에 의한 復原의 結果如來立像의 光背는 全高約 四·三m, 頭光幅 一·五三m, 身光最大幅 二·二m, 光背脚幅約 一·一

이었다. 光背는 寶珠形의 頭光과 卵形의 身光으로 되어 있고, 그 경계점이 內側으로 크게 屈曲하는 形式이다.

頭光과 身光에는 各各 幅三・三・五cm、肉厚一・八cm의 一條의 圓光帶가 새겨졌고, 그 圓光帶를 徑계로 하여 內部에 化佛 外部에 火焰紋을 造出하고 있다.

頭光의 圓光은 如來의 白毫上約三cm쯤을 中心으로 하는 半徑約六二cm의 圓을 그리고 그 外緣에 있는 火焰은 自然火焰光의 簡略化한 것으로 그 基部가 되는 C字形도 軍威石窟庵本尊의 것과 比較하여 보면 작고 弱해지고 있다. 그러나 頭光의 火焰을 身分보다 一段 높히 刻出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頭光의 化佛은 蓮華座의 雲文이 있고 現在 三體가 남아 있으며, 向하여 右端上部의 化佛도 雲文에서 存在가 確認되었는데 頭光中央에 와야 할 化佛은 그 存在는 말할 것도 없고, 位置도 確認할 수 없는 狀況이다. 그러하지만, 四體의 化佛의 配置狀況⑤과 다른 石造佛像光背의 例로 미루어 보아, 아마 中央에도 化佛이 配置되어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경우, 復原된 頭光의 위에서 如來의 頭部 肉髻와 圓光帶와의 間隔은 겨우 二・二cm밖에 안되고 化佛은 雲文을 따로 하더라도, 最低 二・七cm쯤의 空間이 必要한 것을 考慮한다면, 中央의 化佛은 當然히 圓光보다 上部로 빼어져 나오는 形을 취한 것으로 推定된다.

身光의 化佛도 左右上部의 一體와 如來의 左腕으로 보여 지는 斷片(f)에 새겨진 것을 包含하여 三體가 確認되고 또 斷片(f)의 上端에 雲文의 꼬리로 보여 지는 文樣이 있음으로 하여 그 空間에 또 다른 一體의 化佛을 復原하면 身光의 化佛은 左側에 三體가 있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右側에도 對稱적으로 配置할 수 있으므로 身光의 化佛은 全部가 六體있었다고 推定된다.

이와 같이 頭光, 身光을 합쳐서 十一體의 化佛이 當初부터 있었다고 推定되는 것인데 그들 化佛은 右肩偏袒, 通肩과 着衣의 形式은 一定하지 않으나 頭光의 化佛은 正面向이고 身光의 化佛은 左右가 모두 各各 얼굴을 外向하고 兩腕도 外側으로 내밀고 쳐다보는 姿勢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身光外緣의 火焰은 統一新羅時代의 石造佛像으로서 매우 보기 드물고 ⑥ 分立龍唐草文의 系統으로도 보여 지는 C字形忍冬半 팔뚝트를 中心裝飾으로 하고 그 周圍에 있는 瘤節에서 火焰이 派生하는 것인데, 그 古式인 要素는 이 唐草火焰文의 由來한 系統을 말하여 주는 것일 것이다.

(2) 如來의 復原(復原圖參照)

如來의 尊體에 該當하는 斷片은, 頭部二個, 胸部二個, 그리고 光背 斷片和 함께 되어 있는 (f)(h)의 二個와, 調査中 現場에서 發見된 斷片和計 七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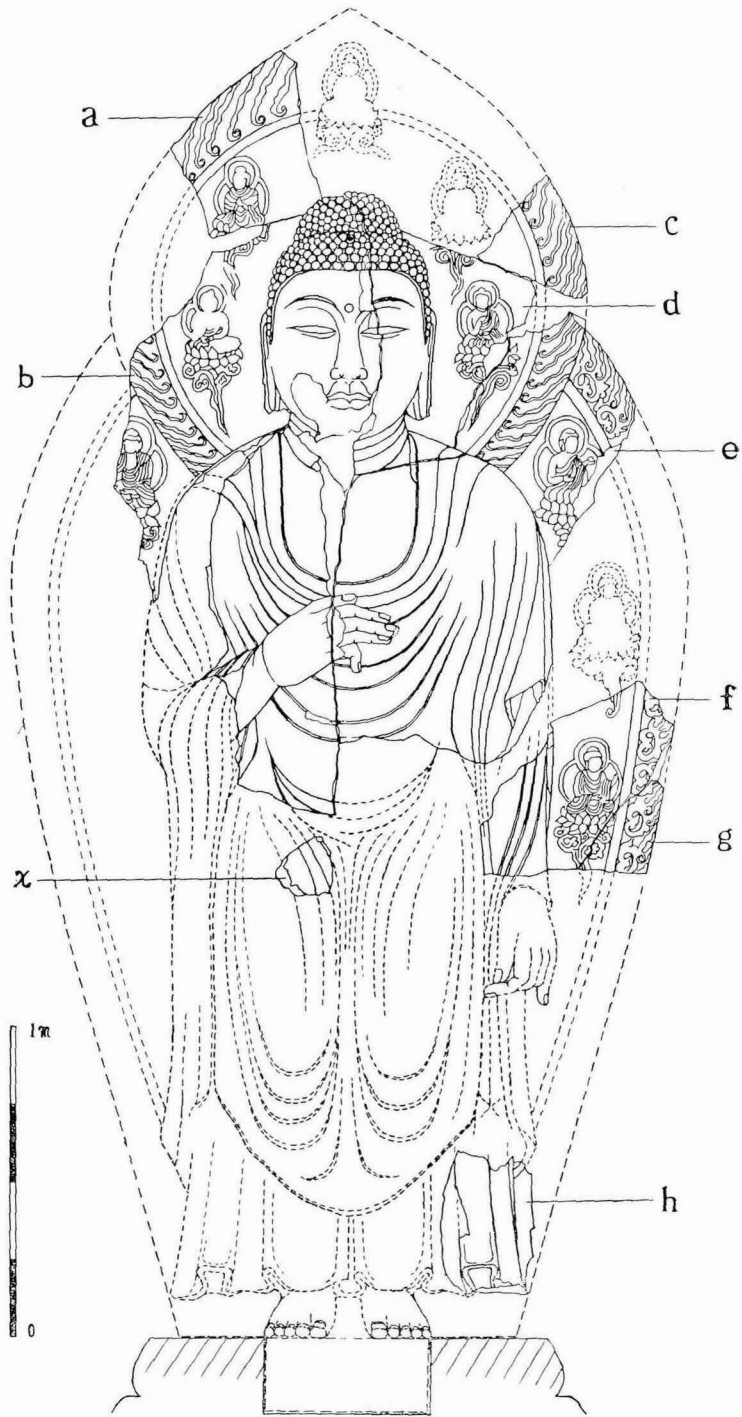
頭部는 二個로 分離되지만, 그것은 頭光斷片(d)를 包含한 右半部를 基石으로 하고 面相의 2/3를 차지하는 右半部가 右耳의 背部에서 顔面에 걸쳐서 剝離된 것이다(斷片高一一〇, 幅八六, 厚六二cm)

胸部도 대강 中央에서 分離되지만 그 龜裂部分은 完全히 一致한다(斷片 幅一〇四, 右半石高一一一, 左半石高九七, 最大厚七〇cm)

復原에서는 頭部와 胸部의 縱의 龜裂部分은 거의 合致되고, 頭部左半部 斷片에 남아 있는 三道와 左肩部도 左胸部斷片和 合致되었다. 頭部右半部 斷片의 턱에서 三道에 걸쳐서는 剝落하고 右胸部斷片의 右肩部分도 現在 缺落하여 不明하지만, 光背斷片(b)에 右肩의 基部가 殘存하여, 頭部와 頭光의 龜裂部分이 合致하였으므로 頭部에서 胸部에 걸쳐서의 復原과 이미 復原된 光背와도 一致시키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如來의 左腕의 復原은 困難, 그리고 重要한 課題이었지만 現存하는 如來左肩의 衣文으로 判斷하여 바로 밑에 드리워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光背斷片(f)에 남아 있는 衣文은 如來의 大衣가 肩에서 腕으로 걸쳐서 垂下할 때 생긴 것으로 이 衣文이 있는 斷片은 如來의 腕에 比定하기에 알맞는 등글기(幅一五cm, 厚二六cm)를 가지고 있다. 또 이 斷片은 身光의 第三化佛까지도 包含하는 것으로 光背의 復原에서도 如來의 左腕에 該當하는 것이 判明되었다. 그 結果 如來의 左腕은 손목에서 팔꿈치에 이르는 데가 復原된 셀인데 남은 것은 左手가 어떠한 手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如來의 허리에서 아래의 部分은 現在까지 斷片이 거의 出土하고 있지



獐項里石造如來像の復原圖

縮尺 1:12
作圖 大西

圖 5.

않으므로 斷片에서의 復原은 不可能하지만 光背斷片(b)에 如來의 袈衣로 짐작되는 衣文이 남아 있고, 단 一個라고는 하지만 將來의 復原에 貴重한 資料이다.

더우기 獐項里如來像의 斷片 中에 袈衣의 直線의 衣文을 갖는 破片(高四六cm, 幅 四二cm)이 出土되고 있는 것은 이 如來가 坐像은 아니고 立像이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資料임과 同時에 그 斷片에 直線의 이지만 왼쪽으로 흐르는 幅 一六cm, 厚 一cm의 衣文과 衣文의 先端處理에 獨特한 Ω形文을 刻出하는 것과는 獐項里如來立像의 袈衣가 新羅의 石佛像에서 例가 많은 直線의 衣文이 連續되는 袈衣를 갖고 아직 그곳에 古式인 Ω形文이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年代推定の 실마리로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 袈衣斷片石에 남은 光背部分은 衣文과 約三〇度 以上の 角度로서 内部로 먹어 들어가 있고 獐項里 如來像의 光背는 身光의 下部에서 尙당히 內曲한 光背임과 同時에 同光背의 厚 十三cm로 보아서 ⑦身光의 外緣에 該當되지만 火焰文이 없는 點으로 보아 이 光背는 如來의 袈衣部分에서는 火焰이 省略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고 推定된다.

四、如來像의 制作年代(表一)

寺名을 비롯한 아무런 記錄도 갖지 않은 廢寺址에서 出土한 佛像인만큼 그 制作年代의 推定은 最終의 佛像의 造像上의 問題로서 생각할 수 밖에는 없다.

勿論 獐項里廢寺址에 關해서는 지금까지 現場에 남겨져 있는 西塔과 佛像臺座의 構築法이나 浮彫의 面에서 그 制作年代가 推定 되어서는 왔지만 佛像의 制作年代가 論하여졌던 일은 없었다.

先學의 結論으로 하는 바는 八世紀前葉說과 中葉說이지만 이들 先學의 研究를 如來像의 制作年代로 하여 볼 경우 韓國의 彫刻史上에서는 다음에 말하는 二點이 解決되지 않으면 안되는 課題이다.

즉 韓國의 石造彫刻史上에서는 八世紀前葉에서 中葉에 걸쳐서 甘山寺 阿彌陀如來立像, 同 彌勒菩薩立像(七一九年)과 石窟庵本尊如來坐像, 同 石窟內諸像(七五一年頃)의 적어도 二例의 貴重한 基準作이 制作되어 있

고 이들 諸像과의 比較研究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에도 말한 바와같이 獐項里如來像이 金堂中央의 八角臺座上에安置되어 있던 것은 틀림 없고 材質의 淡褐色인 결이 잔 花崗石만 하더라도, 寺址의 앞을 흐르는 大鐘川上流의 강 바닥에는 同質의 巨大한自然石이 散在하고 있고 이러한 石材를 利用하여 獐項里의 如來像이나 兩五層石塔은 現地에서 거의 同時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筆者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1) 八世紀前葉說로 하더라도 獐項里如來立像은 甘山寺의 兩像에 比하여서 年代가 올라갈 수 있을가 어떨까.

(2) 八世紀中葉說에서는 石窟庵本尊像에 比하여 年代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일까 어떨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如來像의 復原을 基本으로 그 造像上의 特色을 보면 尊體各部의 數値는 別表와 같다.

如來의 눈은 얼마간 눈앞에서 눈끝에 걸쳐서 치켜 올라갔지만 上臉과 下臉은 거의 같은 曲線을 그리고 약간 눈앞에 convex가 느껴지지만, 日本의 天平佛에 나타나는 것 같은 기부는 볼 수 없다.

獐項里像과 甘山寺阿彌陀像의 法量 比較表

尊體 各部의 名稱	獐項里 如來像	甘山寺 阿彌陀像
全像 高	(三六九・〇) cm	一八〇・五 cm
肩 幅	一一〇・〇	六〇・〇
頭 高	八二・〇	四〇・〇
頭 幅	五三・〇	三〇・〇
面 長	五五・〇	二五・〇
耳의 크기	(四〇・〇)	二〇・〇
目의 크기	一六・〇	八・〇
三道의 높이	一〇・〇	六・〇
手의 크기	四四・〇	二一・〇
頭頂부터 腹部까지	一九五・〇	一〇〇・〇

() 內的 數値는 推定復原值

眼窩緣에 따라서 眉에 꽤 깊은 溝를 넣고 그 線과 눈시울의 境界를 확실하게 區別될 정도로 등글게 새겨 놓았다. 또 下臉에는 眉와 같은 刻線만은 없지만 꽤 明瞭한 隈取를 하고 있다.

螺髮에 渦卷은 없고, 光背와 一體를 하기 때문인지 螺髮은 兩耳의 部分까지밖에 造形되지 않고 背面은 省略되어 있다. 獐項里如來像의 頭部에서 가장 현저한 特色은 如來의 頭幅이 頭長에 比하여 좁고 椎實形을 하고 있는 것, 또 頭部의 兩귀의 위와 목덜미 및 肉髻基部의 中央과 計五個의 穴(幅一·一·二cm, 深三cm)이 돌려져 있는 것이다.

如來의 上半身을 보면 大衣는 通肩이고 胸襟을 크게 펼치고, 右手를 平부려 가슴에 대고, 左手를 쳐드는 手相은 韓國의 石造佛에서 전혀 例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獐項里如來像의 特色의 하나이며 光背面에서의 가슴의 厚四三cm, 가슴둘레 九〇cm, 허리둘레 六六cm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兩乳部에서 꽤 부풀음이 있고, 허리가 가는 느낌이 드는 佛像이다.

衣文은 數條의 半弧를 그리면서 胸前에 드리우는데 如來胸部의 斷面(圖4)에서도 알 수 있는 것같이 如來의 右腰部에 남은 三條의 衣文(腰部의 一點에서 三條로 나누어져 腰部에 이르는 線만은, 三角波狀의 褶襞(圖4)으로 變化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며, 筆者가 獐項里의 現場에서 採取한 衣文斷片(높이 一九·五, 넓이 一八, 깊이 一三·五cm)도 이 三角波狀衣文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獐項里如來立像과 甘山寺彌勒菩薩立像이 臺座上에서의 安置方法이 전연 一致하는 것은 指摘한 바와 같지만 그 以外에도 甘山寺의 彌勒, 阿彌陀 兩像과의 類似點을 몇 개 들 수 있다.

즉 (1) 復原된 光背는 彌勒像의 光背가 그리는 外形曲線에 매우 가깝다. (2) 如來의 衣文形式이 阿彌陀像과 같은 구부다式通肩着衣法이고 그리고 裙衣의 衣文處理에 兩者가 함께 Ω形文을 使用하고 있다. (3) 如來의 尊體 各部의 數值를 阿彌陀像의 數值와 比較하면 거의 獐項里如來像은 甘山寺阿彌陀像의 二배에 가깝다. (表1參照) 또 上記(3)의 特色은 獐項里如來立像의 推定復原像高의 參考資料로 하여, ⑨ 如來立像의 全像高를 約三·七cm로 推定할 수 있었다.

그러나 兩如來像의 細部를 보면 面相에서 치켜올린 氣味の 눈은 비슷

하지만, 甘山寺像에서는 눈(目)의 中央에 眼을 관 恠적이 있고, 眼窩緣에 따라 眉에 넣은 홈도 그다지 깊지 않고 오히려 눈시울을 깊게 우뚝히 새겨 놓았다.

衣文도 獐項里如來像의 平板狀褶襞에 對하여, 丸彫의 紐狀褶襞이고, 그리고 또 襞의 아래에 陰刻線을 넣은 獨特한 技法을 쓰고 있다

이 등글기(丸味)를 가진 紐狀衣文은 이미 軍威石窟本尊(七世紀後半—八世紀初)이나 조금 내려와서는 南山出土石造如來坐像에도 보이며 新羅石造佛像의 衣文表現技法으로서 길이 이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獐項里像에서 볼 수 있는 淺은 平板狀의 褶襞을 겹치는 技法과의 사이에 는 적어도 新羅佛에서는 그 發生의 時期的 差異가 있고 八世紀中葉을 代表하는 石窟庵本尊이 淺은 平板狀褶襞으로 衣文을 構成하고 있는 것은 獐項里如來像의 制作年代를 어느쯤에 位置시켜야 될지를 暗示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石窟庵本尊像과 獐項里如來像의 大衣의 衣文表現은 右肩偏袒과 通肩의 差는 있지만 확실히 서로 아주 닮고 있다. 특히 가슴에서 胸部의 襞 左肩에서 腕에 걸쳐서의 縱襞의 表現이 그러하다. 그러나 石窟庵의 本尊은 光背를 갖지 않는 丸彫像이라는 점도 있어서 獐項里像보다는 훨씬 가슴도 두껍고, 衣文의 表現도 淺고 날카롭고 乳房이 着衣를 通하여 보이는 程度이다.

面相에 대하여 보면, 眼窩緣에 따라서 眉에 홈을 넣고 눈시울을 明瞭하게 區別하며 下臉에 隈取를 하는 點에서는 닮고 있으나, 눈은 눈앞에서 눈끝을 거쳐서 상당한 convex에서 concave에 이르는起伏이 나와 있고, 턱을 당겨서 그곳에 陰刻하고, 二重 턱을 表現하는 것 등은 獐項里如來像보다는 進歩된 造像樣式을 느끼게 한다.

渦卷狀의 螺髮과 肉髻도 낮고, 兩耳도 正面에서 보면 서로 닮고 는 있지만, 側面에서 보면 獐項里像의 直線的인데 대하여 石窟庵像은 曲線的 構成이라고 말할 수 있는 相異가 있다.

이와 같이 獐項里如來像과 八世紀前葉의 代表作 甘山寺阿彌陀像、 八世紀中葉의 代表作 石窟庵本尊像과의 造像上의 比較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獐項里如來像은 八世紀의 新羅石造佛의 系譜로서는 甘山寺像을 包含

한 一系統의 흐름속에 組入하여야 할 것이지만 甘山寺像보다는 造像樣式에 새로운 要素가 加味되어 있는 點에서 制作年代가 내려온다. 그리고 石窟庵像은 그러한 獐項里像에서 볼 수 있었던 新樣式을 다시금 發展시킨 造像으로 볼 수 있으므로 石窟庵本尊의 制作年代 보다 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推定된다.

五、如來像의 推定復原(復原圖 參照)

出土斷片에 의하여 現狀復原된 獐項里如來立像에서 아직 資料不足으로 復原할 수 없는 頭光頂部와 化佛、如來의 下半身部分、左手의 相 등은 今後、廢寺址의 完全發掘等에 의한 佛像斷片의 出土를 기다려 復原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까지에 밝혀진 復原結果나 造像上의 特色、制作年代 등에서 어느 程度 推定復原이 可能的 部分에 대하여 簡單히 言及해 보려고 한다.

(1) 如來의 像高를 約三·七m로 하면, 獐項里如來立像은 臺座와 光背까지도 包含하면 實로 五·四m로 되는 巨像이었던 듯하다. 像을 金堂中央에 安置하여 보면 佛殿의 入口에서 臺座中央까지는 約四m이므로, 가령 參拜하는 者가 入口에서 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視線의 높이에서 頭光頂部를 보았을 때 如來의 肉髻上部 約二〇cm는 視覺에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앞서의 光背復原에서 頭光의 圓光과 如來의 肉髻 사이에 約二cm 밖에 空間이 없고 中央의 化佛은 圓光보다 밖으로 빼어나 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如來立像을 制作한 當時의 人間은 이 無意味한 空間에 化佛을 만드는 일을 避하여 中央의 化佛만은 圓光帶上, 또는 그 外側에 配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

이러한 造像例로서는 立像은 아니지만 南山菩提寺의 石造如來坐像이 있다. 그러나 光背의 圓光과 化佛의 位置關係는 모든 化佛이 圓光 內部에 있는 것이 正當하겠지만 어떤 必然的인 條件에 依한다고는 하지 않으나 하나라도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劃期的인 일로서, 一두 밖으로 나온 것은 上은 두번 다시 되돌아가는 일은 없고, 얼마 안되어서는 無條件으로 모든 化佛이 밖으로 빠져져나오는 現象^㉔을 가져오게 된다.

(2) 如來의 下半身部도 左手에 關係서는 너무나도 出土斷片不足으로 袈衣의 一部를 除하고는 全然 推定으로 밖에 되지 않으나, 如來像의 制作年代를 八世紀前葉末부터 中葉에 걸쳐서의 것으로 보아, 如來의 着衣나 特殊한 尊姿를 考慮하여 年代는 조금 내려오지만 다른 많은 造像例에서 어느 程度 추측되는 復原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즉, 獐項里像과는 반대로 左手를 가슴에, 右手를 내리는 모습이지만, 月城郡 內南面 斗代里 磨崖佛의 本尊이나 慶南 居昌郡 陴平洞의 石造如來立像 등은 形式的으로는 獐項里如來像에 가까운 佛像이다.

이들 佛像의 下半身은, 斗代里像은 衣文이 腰部에서 股間에 集中하여 흐름에 對하여 陴平洞像은 모든 衣文이 U字形狀으로 되풀이 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나 統一新羅時佛像의 典型的 衣文形式을 代表하고 있다. 그러나 兩像에 共通하고 있는 點은 大衣의 옷자락이 에프론狀으로 處理되어 있는 것, 袈衣가 어느 정도 縱襲을 주로 하여 構成되고 있는 點이다.

또 上記 兩像과 類를 같이 하고 制作年代와 尊像名이 推定되는 八世紀後半의 掘佛寺 四面佛의 南西傳 釋迦如來像은 破損으로 頭部와 가슴상의 左手가 明瞭하지 않지만, 左手를 내리고 衣文의 端을 쥐고 通肩구프타式的 着衣, 腰部에서 股間으로 흐르는 衣文, 末端을 에프론式으로 處理한 大衣, 兩足を 平行으로 造出하는 것 등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獐項里如來像의 下半身部分의 推定이 어느 程度 可能的 點이다.

六、如來像의 尊名에 關하여

獐項里如來立像의 尊名에 關係서는 現在에 있어서 全然 不明이라고 하여도 좋지만, 掘佛寺나 斗代里에서는 三尊形式을 취하고, 掘佛寺에서는 釋迦像에 斗代里에서도 阿彌陀 또는 釋迦像으로 생각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러나 獐項里如來立像이 三尊形式이었던 可能性은, 지금까지로서는 희박하고 甘山寺와 같이 單獨像으로 생각된다.

다만, 尊名의 推定에도 關係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은, 如來의 頭部에 보이는 五個의 穴의 問題이다.

肉髻基部の 中央穴이 가장 크고, 徑一·二cm, 귀의 위와 목덜미의

穴은, 徑 1cm 고 深 3cm 에 이른다. 中央穴 뿐이라면 後世의 佛像에 나타나 肉髻珠의 先驅로 생각되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다른 四個가 對稱的으로 二個씩 配하여진 點을 考慮한다면 역시 一括하여서 使用目的을 생각하는 것이 妥當하다.

더우기 獐項里如來像은 다른 八世紀의 佛像에 比하면 頭幅이 좁고 椎實形을 하고 있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稀有한 일이지 않지만, 金銅製의 寶冠을 붙였던 穴이나 아니었던가 하는 解釋도 成立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寶冠如來의 形式이 印度에서 中國을 거쳐 新羅에 傳해지고 寶冠如來로서 獐項里如來像이 造像되었다고 假定하기에는 그나름대로의 寶冠佛流行의 背景이 必要하지만 七世紀의 中葉에 걸쳐서 玄奘三藏은 中印度의 마가타 國菩提寺의 釋迦坐像이 瓔珞 寶冠을 달고 있던 것을 보고 있으며, 그보다 늦게 印度에 갔던 王玄策은 그像을 宋法智에게 模寫시켜 그들의 歸國以降, 이 「金剛座上의 釋迦坐像」은 中國에서 流行한 듯하다.

그러한 寶冠佛流行의 발자취를 우리들은 中國龍門의 伊闕東崖香山寺의 唐代石窟造像이나 寶慶寺(花塔寺)의 浮彫石佛板^⑩ 등에서 볼 수 있고, 그들의 造像時期도 대강 七〇五年—七三四年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右에 든 寶冠如來像은 어느 것이나 方形臺座를 갖는 坐像인 點八角臺座를 하고 立像인 獐項里像과는 커다란 差異가 있다. 그렇지만, 理解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造像을 展開한 唐代의 造像狀況에서 判斷하는 限 坐像과 立像 및 臺座形의 相違만으로 當時의 新羅에 寶冠如來形의 造像이 없었다고는 斷言할 수 없다.

그리고 가령 獐項里 如來立像을 寶冠佛로 하여도 釋迦像인지, 그렇지 않으면 阿彌陀像인지 問題가 되며, 한편 九世紀以降 密敎의 色彩 속에서 造像이 活潑해지는 毘盧舍那像^⑫과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 것인가 研究해야 할 點이 많이 있다.

그리고 獐項里如來像 頭部의 小穴에 關하여 이것과는 直接 連結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는 생각하지만 먼저의 甘山寺彌勒菩薩立像, 同 阿彌陀如來立像의 調査時 兩像頭部의 頂上에도(高髻와 肉髻頂部) 徑 2cm, 深 2-



圖 7. 尊像의 右耳 (孔穴이 보임)



圖 6. 尊像의 胸部

五cm의 穴이 各一個씩 뚫여져 있는 것이 判明되었다. 이 小穴은 兩像이 菩薩과 如來이므로 尊名과는 無關係라고는 생각되지만, 獐項里如來像의 小穴과 함께 今後의 問題로서 提起해 두고자 한다.

最後로 今般의 復原을 基本으로 하여, 지난날의 獐項里廢寺石造如來立像의 尊容을 想起한다면 如來는 像高約三·七m, 臺座와 光背를 包含하면, 實로 五·四m에 達하는 巨大한 立像이고, 크기로서 石窟庵의 本尊像을 凌駕할 뿐만 아니라. 制作年代로서 보드라도 同像보다 더 올라간다. 그리고 光背에 十一體의 化佛을 配하고 右手를 가슴에, 左手를 내린 手相과 그리고 頭部에 寶冠狀의 裝飾을 단 獨特한 尊名을 가지고 足下에 마련된 長方形의 자루로 金堂中央의 八角石造臺座上에 安置되어 東方 南方 멀리 東海로 向하여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고 생각된다.

註

- ① 當時의 石塔工事仕樣과 佛像斷片 運搬에 대해서는 慶州古蹟保存工事綴『韓國塔婆資料』(考古美術資料 第二輯, 一九六八年, 金禮庚 編)所收를 參照.
- ② 基壇前面中央에 幅二·八m의 階段址가 있다. 各礎石은 方約 七五cm, 二重圓形 造出은 外部徑 六一, 內部徑 五〇·五cm고, 各礎石間에는 地盤長石이 보인다.
- ③ 南西五層石塔의 舊狀과 復原에 關해서는 藤島玄治郎氏「慶州를 中心으로 한 新羅時代變型三層石塔·五層石塔及 特殊型石塔」(『建築雜誌』一九三三年, 十二月號 所收)參照.
- ④ 圓光帶만을 새긴 小石. 表面에 化佛의 頭狀의 것을 造出하는 縱三五×橫一九×厚一八cm의 斷片. 無文이지만 光背의 部分으로 보이는 縱四五×橫九二×最大厚 三八·五, 最小厚 一五cm의 斷片인 三個이다.
- ⑤ 頭光에는 四體의 化佛이 確認되지만 아래의 二體에 比하여, 위의 二體의 化佛은 그 頭光이 이미 圓光帶에 接하고 配置에 段層의 手法이 보인다. 中央 博藏의 南山出土石佛坐像의 化佛에도 이러한 手法이 보이며, 中央의 化佛의 머리는 圓光帶에서 一部 빠져져 나와 있었다.
- ⑥ 獐項里像의 制作年代에 가까운 例로서 金銅佛이지만 皇福寺三層石塔 出土의 佛立像과 坐像의 光背에는 分立龍唐草系統의 C字形文과 忍冬唐草가 보인다. (八世紀初)
- ⑦ 頭光과 身光上部의 外緣端의 깊이는 六cm이며 身光上部 以下에서는 圓光에서 外緣에 걸쳐서의 깊이는 一五·九cm이다.

⑧ 藤島玄治郎氏「陽北面塔亭里寺址」(『朝鮮建築史論』其三, 第二篇第五章, 一九三五年 五月 所收)에서 西塔의 構築年代를 羅原里五層塔과 廢昌林寺五層石塔의 中間에 놓고 東塔 甲石의 制作技法과 佛國寺石橋의 技法과의 一致를 指摘.

高裕燮氏「慶州獐項里廢寺址東西五層石塔」(『朝鮮塔婆의 樣式變遷』, 『東方學志』第二輯, 一九五五年 十二月 所收)에서는 聖德王朝代(七〇二—七三六年)의 作品으로 하고 있다.

秦弘燮氏「韓國의 眼象紋樣」(『東洋學』第四輯, 一九七四年 十月 所收)에서, 獐項里의 八角石造臺座를 八世紀 中葉으로 하고 있다.

⑨ 像高復原에는 (1) 甘山寺阿彌陀像의 二倍數, (2) 八世紀新羅佛의 平均的 全像高에 對한 頭光比例值를 쓴다. (3) 甘山寺阿彌陀像의 像高과 頭高比例值 七·二를 쓰는 方法 등이 있지만, (1)(2)의 方法에서 얻은 推定像高는 獐項里像의 上半身에 比較하여 下半身이 極度로 짧게 되는 結果, 拙稿에서는 (3)을 採用하였다.

⑩ 慶北大學藏石造如來坐像, 桐華寺石造毘盧舍那坐像, 忠北槐山郡長延面의 石造毘盧舍那坐像 등 九世紀以降의 石佛像光背에서는 이러한 造形이 많다.

⑪ 大村西崖氏는 唐代 中宗의 神龍元年(七〇五)의 行幸을 香山寺의 創建時로 하고 있다. 同寺寶冠如來坐像은 第一, 第二洞에 보인다. (『支那美術史』彫塑篇 附圖 一九一五年 所收, 五一〇—附圖 七五三, 七五四圖) 參照.

寶慶寺의 寶冠如來佛에 關해서는 福山敏雄氏「寶慶寺派石佛의 分類」(『佛教藝術』九號 所收)參照. 氏는 寶慶寺浮彫板의 寶冠如來에 釋迦像과 阿彌陀像이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⑫ 新羅의 寶冠如來坐像으로서 黃壽永氏가 指摘하고 있는 桐華寺毘盧庵 三層石塔內發見舍利函의 寶冠如來像은 智拳印을 보이는 點이 注目된다. (『新慶敏哀大王石塔記』『史學志』第三輯, 一九六九年 七月 所收)

〔追記〕拙稿의 作成에 關해서는 黃壽永 博士의 敎示에 依한 바가 많고, 文尾 이기는 하지만, 博士를 비롯하여 調査中에 指導 協力を 하여주신 各位에 깊이 感謝하는 바입니다.

(金禮庚譯)